

오직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국립공원협회」 캠페인 (2)

꼭 실천해야 할 25가지 요목

1. 자연속에 안기는 심정으로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포근한 어머니 품에 안기듯 자연속에 안기자. 이것이 자연을 접촉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都市化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 어딘지 서투르고 거칠다. 사람한테 싫은 일이 자연인들 좋아하겠는가. 自然을 대하는 방법을 새로 익히자.

2. 原生林을 비롯한 森林을 보전하자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림이 점하고 있다. 산림이 우리나라를 에워싼 자연환경인 셈이다. 대기의 정화, 수자원의 보호 등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안정시키는데 산림의 역할은 너무도 크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원생림을 비롯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

3. 종이는 안팎을 다 활용하자.

범람하는 광고전단을 비롯하여 뒷면이 하얀 것은 잘라서 메모용지로 재활용하자. 광고전단의 대부분은 화학펄프 100%의 上品紙이다. 버리기는 차마 아깝거니와 종이의 원자재인 목재를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이나 우편물의 봉투도 뒤집어 테이프를 붙이면 재생봉투로 쓸 수

있다. 종이의 절약이 자연자원을 아끼는 길이다.

4. 헌종이 파지도 값진 자원

전세계에서 매년 종이를 만들기 위해 34억 그루의 나무를 베는 셈이라고 한다. 종이의 리사이클에 적극 협력하여 헌종이로 종이를 재생하는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자.

종이의 소비량이 “문명의 바로미터”라지만 이제 종이의 리사이클이 “문화의 바로미터”인 시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헌종이, 파지도 값진 자원이기에.

5. 종이컵, 종이수건, 종이 손수건을 가급적 쓰지 말자.

가정용의 얇은종이로는 티슈 페이퍼(tissue paper), 화장실 용지, 종이 수건, 종이 손수건, 패드(pad), 종이 기저귀 등이 있다. 거기에다 종이 컵, 밀크카톤(milk carton)이 가세하니 펄프를 원료로 한 제품은 그 청결감으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종이제품들은 사용 후에 재활용이 어렵다는데 있다. 애당초 사용자체를 절제할 수 밖에 없다.

6. 불용품은 서로 교환해 쓰자.

불용품은 서로 교환하는 알뜰살림시장이 곳곳에 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의복에서부터 전기제품·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 가운데 아직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고 교환이 되니 당장의 경제성도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 보다 한차원 높게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7. 주방의 음식 찌꺼기는 퇴비로

주방이나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는 도시 쓰레기의 약 1/3을 점하며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포식의 시대를 반증하는 것이리라.

유기물질인 음식 찌꺼기의 퇴비화는 자연의 싸이클에 합치되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지구 살리기 활동이다. 집에서 가꾸는 꽃과 나무에 유기질 퇴비를 주면, 생기와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열매를 충실하게 해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8. 플라스틱 제품을 되도록 멀리하자.

플라스틱의 특징은 녹슬거나 썩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땅에 매장해도 언제까지나 흙으로 화하지 않으니 골치꺼리인 것이다. 태우면 염화수소와 청산가스 등 유독개스가 발생한다. 공기도, 흙도, 물도 오염시키니 땅속에 메울수도, 불에 태울수도 없는 것이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안되고 화기에 약해 大氣오염의 주범이므로 일상생활용품에서 멀리하는 것이 생활환경을 지키는 길인 것이다.

9. 에너지절약은 生活經濟・生活環境運動이다.

실내난방・냉장고・세탁기・조리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이제는 환경의 측면에서 그 절약을 위한 지혜가 발동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음식만들때의 조리기구만 해도 열효율이 높은 것을 찾아야 하고 개스도 환경에 관해 염려한다면 되도록 덜써야 하며 세탁시엔 건조기보다는 햇볕아래 말리는 등 생활개선의 틀

을 바꿔 보자는 것이다.

10. 폐유는 절대 하수도로 흘려 보내지 말자.

주방에서 식용유 1cc를 하수구로 흘려 보냈을 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질로 되돌리는데는 약 200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리뒤의 폐유나 식후에 남은 식용유를 마구 흘려보내면 배수관이 막히는 폐단도 있기에 기름이 묻은 냄비나 식기를 씻기 전에 반드시 휴지로 닦아내는 습관을 붙여야하며 튀김요리뒤의 폐유는 모아서 비누를 만들어 쓰는 지혜도 살펴보자.

11. 합성세제 쓰지 말고 비누를 쓰자.

비눗물이 하수나 시냇물에 흘러 들었을때 하루 만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그러나 합성세제는 30일이 지나도 1/3이상이 분해되지 않으며, 100일 이상 지나도 잔유량이 있어 상수도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수질오염에 특특히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비누는 식용유가 원료이기에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하천의 정화작용에 도움을 주지만 합성세제는 잘 분해되지 않는 석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생물에도 유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12. 빗물을 저수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음료수 아닌 세탁・목욕・변기 등에 쓰는 물은 빗물을 모아서 쓰는 시설을 공공건물이나 빌딩등 집단 건축물에서 갖추면 여러가지로 이득이 될 것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빗물 저수조를 만들고 간편한 여과조를 설치하면 소비되는 水량의 30-50%가량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높은 수도요금에 비추어 시설비용은 금방 회수될 것이며 수자원의 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13.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자.

벌거벗은 땅에서는 빗물의 貯留率이 5%에 불과하다. 큰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흘러 범람하여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반면에 울창한 천연의 숲은 빗물의 35%가 토양에 貯留하여 서서히 땅속에서 정화되면서 이동하여 땅사이로 솟아나와 시냇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삼림은 홍수를 방지하기도 하고 가뭄때도 시냇물을 말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

14. 도시안에 더 많은 숲을

1ha의 삼림은 15-30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11-23t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하니 40-80명이 호흡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숲은 기온의 조정기능과 함께 우리들 생활에 윤기를 더해주고 쾌적한 기분을 돋구어 주는 소위 어메니티(amenity)의 상승작용을 한다. 植樹가능한 공간에는 한그루라도 더 많이 나무를 심자. 숲속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15. 담장보다는 생 울타리로

무너지는 위험성도 없으면서 평화스럽고 생기찬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생울타리(산나뭇을 심어서 만든 울타리)를 널리 보급하자. 자연녹화사업은 우리들의 생활공간에서부터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집들이 산울타리로 둘러싸일 때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는데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의 일환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해 본다.

16. 태양열 주택의 연구와 보급에 열의를 쏟자.

우리나라의 기상데이터에 의하면 태양열 주택

의 실용가치는 전국적으로 심히 높다고 한다. 태양열의 집열시간이 꽤나 긴 기상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와 전력의 절약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에 더하여 공해를 추방하는 환경대책에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태양열 주택(solar house)에 대한 연구·보급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17. 수입식품은 되도록 사지 말자.

수입 식료품의 위생상 안전성이 때때로 문제가 된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어 말썽을 빚기도 하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확 후의 發芽(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벌레 등의 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위 “포스트·하베스트” 농약인 것이다. 더구나 선박수송을 고려한 과도한 사용에서 오는 농약잔량의 폐해는 실로 막심한 것이다.

물론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과 자급을 제고가 급선무이지만 수입식료품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18. 有機栽培방식의 농산물을...

유독성 농약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도 없거니와 토양속의 殘留와 水系의 오염, 氣化한 농약에 의한 대기오염과 곤충, 어패류, 鳥獸에의 영향 등 자연에의 해독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유기농약에 의한 곡물, 야채, 청과물 등의 생산자·소비자간의 제휴운동을 더욱 본격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우리의 건강과 함께 지구를 회생시키는 길과 통하기 때문이다.

19. 쌀로 조리하는 식사를 늘리고 농토를 지키자.

논은 쌀의 생산기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에도 큰 몫을 다하고 있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적 작물이다. 그런

데도 근래에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쌀의 단백질은 밀의 그것보다 월등히 良質이기에 우리들 건강을 위해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땅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먹자. 身土不二사상은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농토는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20.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많이 걷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측면으로 보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되도록 많이 이용하자.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걷는 것이 좋아 하여 하루 1만보 걷기가 유행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 신체운동, 에너지 절약 등 부수 효과가 크다.

21. 건전지는 꼭 회수하자.

건전지는 망간, 아연, 카드뮴, 수은 등을 포함하는 금속전극과 전해액으로 만들어진 중금속 통조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有害 중금속을 쓰레기로 버리면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별수없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만다.

지방자치단체와 회사측이 합동해서 懸賞제도를 활용하는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용 후의 건전지는 꼭 회수하여야 한다.

22. 폐기된 냉장고와 에어컨의 회수 재이용을 제도화 하자.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제품 등에 쓰여진 “프레온”은 그 대부분이 지상에 배출되고 있다. 이것이 對流圈에서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층권에까지 다다르면 무려 60년 이상이나 浮遊하면서 염소원자를 방출하여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한 자외선을 막지 못하

여 피부암, 안질 등에 잘 걸리게 되고 생태계도 파괴시킨다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23. 오염原因者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자.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발생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공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원인자에 부담시키는 이른바 P.P.P는 국제환경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제화(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된지 오래지만 그 실제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뒤틀린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방지에 역점을 둔 전진적인 법제의 정비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망된다.

24.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사전 방지하자.

해양오염은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과 표류물에 의한 오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공장폐수,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 못지않게 선박에서 흘린 유류, 표류물로 인한 오염이 더 큰 위협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惡質 표류물은 플라스틱 제품, 발포 스티롤, 어망 등이며 끊임없는 교육과 행정지도가 긴요함은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엄중한 주민감시를 통한 사전방지가 요청된다.

25. 일상생활, 기업활동의 패턴을 바꾸자.

1회용품이 범람하는 가운데 무엇이든 마구 버리는 생활습관에 젖어있는 우리들.

물건 귀한 것을 모르는 가운데 공해가 量産되는 것을 뒤늦게나마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활동도 제조, 유통, 소비, 폐기의 각 단계를 종합적으로 배려한 생태학적인 것이어야 하겠다. 뉘니뉘니해도 지구를 살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각자 시민이며, 개개의 기업인 것이다.